

[종합·해설]



손학규 범여권 합류 선언

“대통합 불쏘시개 되겠다”

한 탈당 3개월만에... 우리 탈당파 7명 손 지지

‘선진 평화연대’ 세력화... 자신감 얻은 듯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한나라당을 탈당한 지 3개월 만에 범여권에 합류했다. 손 전 지사는 25일 서울 서대문 대선 캠프에서 ‘공개 지지’를 선언한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것이라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단다”며 사실상 범여권 대통합 논의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 전 지사는 이어 “내의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거리낌 없이 힘 있게 뛰번뛰번 가겠다”며 “좀스럽게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으며 불쏘시개와 밀알의 사명도 감당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특보단으로 활동할 지지의원들을 향해 “희망과 비전을 주는 대통합이 돼야 하고, 큰 틀에서 대의로 간다는 뜻에서 여러분이 동참했다고 본다”며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전 지사는 또한, 이날 오후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과 회동, 김 전 의장이 제안한바 있는 ‘범여권 대선주자 연설회의’ 참여 의사를 밝히며 범여권 합류를 공식화했다. 손 전 지사는 26일 정동영 전 의장과 조찬 회동을

갖고 범여권 통합과 후보 연설회의 참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손 전 지사가 범여권에 합류한 것은 정치적 상황이 어느 정도 두르익었다는 자체 판단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한나라당 탈당 역풍을 극복하고 범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다 자신의 지지 조직인 ‘선진평화연대’의 세력화에도 성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범여권의 핵심부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범여권의 통합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점에서 자신이 중심이 돼서 범여권 대통합의 돌파구를 뚫는다면 범여권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범여권 통합 논의는 새

력 중심에서 후보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어느 정도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 7명이 이날 손 전 지사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대선 예비 후보들도 지지 의원들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김부겸, 안영근, 김동철, 신학용, 정봉주, 조정식, 한광원 등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 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 전 지사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우리는 손 전 지사 지지를 선언하며, 손 전 지사와 함께 다가오는 17대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며 “손 전 지사는 선진국 도약, 한반도 평화,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지도자”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통합을 위한 국민경선 광주·전남 시민연대 출범 기자회견

▶일시 : 2007. 6/25(월). 11시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기자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세력 대통합·국민경선 촉구**‘대통합 광주·전남 시민연대’ 출범**

범여권이 통합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종교·학계 원로를 포함한 시민 2천7명이 ‘대통합을 위한 국민경선 광주·전남 시민연대’(이하 ‘대통합 시민연대’), 대표 이홍길 5·18 재단 이사장)를 구성하고 평화민주 세력의 대통합과 완전국민경선 실시를 촉구했다.

대통합 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는 분열과 독선의 정치로 국민에게 외연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구부세력의 부활을 돋우고 있다”며 “평화민주세력은 제18대 대선을 통해 국민이 수구부세력과 결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합 시민연대는 또 “대통합은 2007년의 시대정신이며 완전국민경선은 그동안 제안해온 대안이다”

선은 그것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며 “대통합과 완전국민경선은 평화민주 세력의 통합을 이루고 사회 양극화 완화와 중산층의 확대, 나아가 남·북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합 시민연대는 이어 “대통합과 완전국민경선의 성공을 위해 평화 민주세력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제안자 그룹을 조직하여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파나 단체와 연대할 것”이라며 “제 정파는 7월10일까지 대통합 신당 합의와 완전국민경선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통합의 길을 가로막는 민주당 박상천 대표와 중도개혁 통합신당 김한길 대표는 소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합 시민연대에는 이홍길 5·18 재단 이사장, 김삼용 재활후견기관 전

남협의회 사무국장, 김재균 전 광주시 북구청장, 김종자 평화아카데미 이사장, 김후식 5·18부상자회 이사장, 리명현 전 민족작가회의 의장, 박영근 장애인협회 광주대표, 배상태 가톨릭 농민회 전국회장, 이강 민족경제연구소 소장, 이문운 학장서예원 원장, 이형석 전 광주시의회 의장, 전갑길 광산구청장, 정동현 전 5·18민주항쟁연합 의장, 정재훈 동아병원장, 정해숙 전 전교조 위원장, 지선 스님, 진종근 전 고흥군수, 최민석 장흥성당 주임신부, 허기택 동신대 학장, 현지 스님(원효사 주지),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황태주 전 전남대 병원장 등이 제안자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시민연대는 또 2~3차의 제안자 선언과 함께 광주·전남시도민 1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범여권 8인 연설회의’ 무산

이용희 국회부의장과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범여권 8인 연설회의’가 제 정파의 참여 거부로 무산됐다.

이 부의장과 정 전 의장, 김한길 중

도개혁통합신당 대표, 박상천 민주당 대표, 정대철 전 우리당 상임고문 등 범여권 중진 5인은 지난 24일 오찬회 등을 갖고 우리당-중도개혁통합신당-민주당-탈당그룹 등 4개 정파가 2

명씩 대표를 파견해 ‘원탁 테이블’을 꾸릴 것을 제안했으나 우리당 측의 협상자격을 놓고 정파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성사되지 못 했다.

범여권 중진들은 25일 오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첫 연설회의를 갖기로 했으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아무도 회의 장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전날 ‘8인 연설회의’ 합의를 놓고 신당과 민주당은 우리당과의 ‘당 대당’ 통합 불가 원칙에 따라 우리당의 경우 당 대표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연설회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리당은 모든 정파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통합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이 중단 또는 유보돼야 한다는 참여 조건을 내걸었다.

/연합뉴스

범여·비한나라 후보중 유력 주자 지지 가능성**■ 광주·전남 김근태계 진로는**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김재균 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위원장과 이형석 전 광주시의회 의장 등 김 전 의장의 광주·전남 조직의 정치적 선택에 지역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김 전 의장의 대선 불출마 기자회견 이후 그의 조직인 ‘광주·전남 한반도포럼’ 회원들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와 관련 김 전 의장 캠프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조직원이 다른 대선후보를 위해 일할 것”이라며 “이 같은 선택을 막을 수도, 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관심의 초점은 김재균 전 위원장의 선택이다. 김 전 위원장은 ‘광주·전남 한반도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김 전 의장의 광주·전남 조직과의 협력 방식에서 김 전 위원장의 선택과 이형석 전 광주시의회 의장의 당원으로 확보하는 등 그의 조직력을 둘째 가리면 서려울 정도로 알려져 있다. 또 북구에서 상당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형석 전 광주시의회 의장과 정치 행보를 같이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그의 선택은 향후 범여권·비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세 대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현재 김 전 위원장이 지지할 수 있는 범여권·비한나라당 후보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 전정배·김혁규 의원 등이다.

하지만, 김 전 의장과 이 전 총리는 지난해 지원선거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과의 악연이 있다. 정 전 의장은 당시 당의장으로서 광주시장후보 경선을 주장하면서 광주에서만 10만여명의 당원을 확보하는 등 그의 조직력을 둘째 가리면 서려울 정도로 알려져 있다. 또 북구에서 상당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형석 전 광주시의회 의장과 정치 행보를 같이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그의 선택은 향후 범여권·비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세 대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위원장의 측근은 “범여권 통합을 위해 노력하다가 주변 정치상황을 봐가며 지지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7월 2일 핵심요약정리 + 단원문제풀이

첫진도 개강

- 기본서 핵심요약으로 심화과정 이해
-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한 출제 포인트 이해

광주고시학원

주택관리사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본원 227-8003

첨단점 971-0002

24F

광주광역시 북구 카리나타운 4F

795-0990

평생교육원

24F

광주광역시 북구 카리나타운 4F

795-0990

본원 227-8003

971-0002

24F

광주광역시 북구 카리나타운 4F

795-0990

평생교육원

24F

광주광역시 북구 카리나타운 4F